

# “광주 상무대, 역사적 군사 요충지”

향토사학자 김정호 씨 발품 팔아 ‘요새의 땅, 광주 상무대’ 펴내 6·25 때 포로수용소 설치 등 역사와 결부된 희로애락 담아



김정호 씨

“광주가 ‘5·18항쟁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만큼 ‘상무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군과 관련한 아픔이나 혐오 때문인지 상무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老) 향토사학자의 말을 듣고 뜨끔했다. 광주에서 상무대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인데도 정작 상무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상무대는 청춘의 시절 군과 관련된 추억들이 있는 곳일 뿐이었다.

그러나 상무대는 경제적 비중 등 여러 관점에서 광주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지역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 김정호(85) 향토사학자(전 진도문화원장)가 ‘요새의 땅, 광주 상무대’ (심미안)를 펴냈다.

김 원장은 “군사시설이 철수한 후 시민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지 30년이 가까워 오는 데도 이곳 옛 군사시설 내용은 아직도 공개 불가다”며 “실사 광주 상무대에 관계된 자료들이 보안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광주 상무대 시절 이후에 태어난 탓에 30여 년 전 일에 대해서는 서름서름한 것이 문재였다”고 말했다.

그는 2·3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때로는 택시를



5·18자유공원으로 옮겨진 상무대 표지석. <심미안 제공>

타고 현장을 답사했다. 혼자 자료를 모으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군에서는 아직도 보안이 안 풀렸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안 해 책을 쓰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후백제시대 견훤이 왕건과 전쟁을 벌이던 장지 중간 지역이 바로 상무대입니다. 지금의 운암동에 후백제가, 왕건은 지금의 서창인 벽진에 주둔했지요. 상무대는 중간목이었던 셈이죠.”

김 원장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 상무대가 있던 곳은 군분면(軍盆面)에 속해 있었다. 군분면은 지명이 뜻하는 것처럼 ‘군대를 주둔시키는 요새’라는 의미다. 또한 “무각사라는 절이 있는 망덕산 자락에는 쌍촌동 노치(老雉)마을이 있었는데, ‘치(雉)는 성 ‘치’자로 옛 성이 있었다”며 “망덕산 그리고 농성동에서 화정동까지가 당시 군분면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고려 때는 광주가 왕건의 마음을 사서 광주가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 왕건의 두 번째 처가 고을 나주가 우대를 받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또한 광주 행정의 중심 동네인 치평동은 “조선시대에는 내정면(丙丁面)이라 부르던 강변의 평촌과 하촌 두 동네와 하촌의 언덕바지에 있던 군분면의 노치 동네를 합해 만든 이름”이라고 했다. 내정은 내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오늘의 치평동은 1914년 일본 통치자들이 새로 만든 행정 동네 이름인 셈이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 조선총독부는 광주군 극락면 영산강변에 비행장을 건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다. 조선시대 이름(내정면과 군분면)을 버리고 극락면이라는 새 이름이 붙여지는데, 극락면 영산강변에 비행장을 건설함으로써 군용정찰을 용이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6·25 때는 상무대에 포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광주는 군사시설과 비행장이 같이 있어서 당시 비행장은 상무대포병학교 항공과 훈련비행장이자 부산에 있는 미군이나 고문단이 해운대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로 올 때 사용하는 군용비행장으로 쓰이고 있었지요. 이 비행장은 철조망이 민간 출입을 가로막아 비행장 끝부분 활주로와 공지에 텐트를 치고 포로를 수용했습니다.”

저자는 “무생물인 땅에도 천부의 권리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땅도 혼이 있다. 생명이거나 무생체인 흙이나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1997년 간행한 ‘광주시사’ 제9장의 ‘군사’, 1996년 전남대박물관이 용역을 맡아 쓴 ‘상무대 개발지구 조사보고서’를 참조했다.

한편 진도 출신인 김 원장은 향토문화진흥원장, 전남도 문화재위원, 진도문화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영호남의 인문지리-동서 지역감정의 사회사’, ‘한국의 귀화성씨’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광주 소년·소녀 ‘목소리’를 찾습니다

시립합창단 청소년단원 공모... 18~22일까지 초4~고2 학생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합창단)이 2024년 활동할 신규 청소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12월 현재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8~22일(오후 5시까지) 합창단 이메일로 응시원서, 자유곡 약보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3일 오후 2시부터 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자유곡 1곡, 음정 테스트, 따라 부르기 등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합격자는 다음 달 8일부터 합창단원으로 활동하

게 된다. 공연수당, 활동 지원금(장학금) 및 단복, 간식, 음악캠프 및 워크숍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기연습 일정은 학기 중 매주 화, 목(오후 6시~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으로 지원자는 해당 시간에 연습이 가능해야 한다. 외부 공연 시 상황에 따라 연습일정 추가 가능.

권기원 지휘자는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적성을 찾고 광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좋은 기회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시립창극단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인권위, 예술감독 인사 조처 권고... 식사 접대 지시 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 예술감독의 일부 단원들에 대한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배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창주시장에게 ‘예술감독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부 단원들의 진정을 받고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부임한 예술감독은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식사 접대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를 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결정문은 예술감독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창극단 상임단원, 수석단원 등 피해자들에게 대해 ‘갑질’을 했다고 적시했다.

지위를 활용한 인사권 남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감독은 특정 단원의 스승을 지칭하며 “내가 감독으로 있는 한 (창극단에) 절대 못 온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시립예술단원에 대해 ‘출연 배제 및 근무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감독은 다수의 단원들이 주·조연을 담당해 온 예술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부터 주요 배역에서 배제했으며 근무평정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과해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년 넘게 지속돼 온 창극단의 명예가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 아직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창극단에 어떤 예술감독이 부임하더라도, 면밀한 인사 검증을 거쳐 ‘갑질’ 등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예술감독은 “현재 불거진 사안들은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일 뿐, 이에 대해 인정할지 여부 등은 속고와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노코멘트”하겠다고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에 대해선 신입직원의 적응을 도와주려는 의미거나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시 도와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단원들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지민·정국 입대... BTS 멤버 전원 ‘아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11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한다.

오는 12일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만형 진은 작년 12월, 제이홉은 올해 4월 각각 입대했고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이다.

RM은 전날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잠시 동안 안녕”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우리이도! 미래에서 만나자”고 인사도 건넸다.

뷔는 지난 5일 위버스를 통해 “설렌다”며 “같이(군대에) 가는 친구들이 저보다 어릴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멤버들과 소속사 측은 팬들에게 입영 당일 훈련소에 찾아오는 것은 삼가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RM, 뷔, 지민, 정국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소속사는 2025년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